

신 년 사

경인년(庚寅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인들 모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존재하는 모든 유정·무정물에게 안락과 평화가 깃들기를 발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힘겨워 했습니다. 또한 지구적 환경위기, 남북문제, 노사·빈부 갈등과 지역 균형발전 문제로 인한 대립은 화해와 상생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새해는 소통과 화합, 성찰과 나눔으로 서로를 감싸 안고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고통과 갈등은 소통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데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눔으로서 서로의 마음을 녹여야 합니다. 오만과 아집, 인간 중심의 이기주의를 버릴 때 우리의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성찰할 때 우리는 평온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고단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중생계는 부처님이 출현하고 예수님이 강림하는 세상이며 그렇기에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앞장서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 합시다.

새해에는 따스한 자비와 해맑은 사랑으로 모든 존재가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54년(2010) 새해를 맞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